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社說

利息制限令 改正說

一

時代에 適合치 못한 利息制限令을 改正 利率을 大幅低下하야 高利債에 苦惱하는 一般庶民生活安定을 圖謀하는 同時에 高利貸金業者의 跋扈를 抑制하고저 ...

二

只今 改正하려는 現行利息制限令은 明治四十四年十一月制令第十三號로 制定된것으로 그當時 朝鮮의 金融事情을 基礎로 한것은 勿論 內地의 資本을 誘入할수잇는대로 朝鮮으로 誘引하기爲하야 內地보다 率을 훨신높게하얏다 ...

三

이외가티 朝鮮中小商工業者及 一般庶民間에 法定利子보다 몃倍나비싼 高利債가 橫行하게되는原因은 첫재 中小商工業者와 農民을 相對로하는 小口貸付金融機關이 不備한것과 ...

[illegible]

支那事變戰死戰傷死者

第二回論功行賞

總計二千三百廿六名

【東京電話同盟】今次事變第二回論功行賞은 御裁可를 어더 二十八日午後一時半 內閣賞勳局으로부터 發表되엿다 恩賞에 浴한 勇士는 總計二千三百二十六名으로 그中 陸軍關係는 二千二百六十名, 海軍關係는 六十六名이다

그리고 陸軍關係는 戰死 또 戰傷死한 將兵이 ...

▲海軍의 拔群者

功四旭五 海軍少佐 安藤 三 原籍地 茨城縣那珂郡中野村 明治四十一年二月十六日生

功五旭七 同 坂本以文 原籍地 鹿兒島縣囎唹郡大崎町 明治四十一年四月二十一日生

功五旭六 航空兵曹長 協田秀司 原籍地 岐阜縣羽島郡川島村 大正三年三月十二日生

[illegible]

論功行賞發表後

下條賞勳局總裁談

【東京電話同盟】下條賞勳局總裁는 二十八日午後一時半今次事變 第二次論功行賞의 發表를 마치고 如左히말하엿다 ...

坂本以文少佐略歷

九江占領諸部隊 戰果擴張中

【上海二十八日發同盟】中支軍二十八日午後五時發表=九江占領諸部隊는 目下戰果擴張中이다 ...

辭令

時局進展에即應하야

政府議會協力을要請

國民精神物資動員徹底化次

議會方面每月懇談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國民精神總動員及 物資動員計畫의 徹底强化에 關하야 政民兩黨等各派의 協力을 求하게되어 廿六日의 近衛首相 有馬農相의 會見及 同日의 內政會議에서 其具體策에 關하야 方針을 決定하엿는데 ...

張鼓峯蘇聯兵

依然不法行動을繼續

【〇〇二十八日同盟特派員發】張鼓峯事件도 外交交涉에 드러갓는데 蘇聯側에서는 ...

蘇極東方面에

大大的肅正工作開始

【莫斯科二十七日發同盟】 ...

四川省軍政當局

轉覆大陰謀發覺

【上海二十八日發同盟】 ...

滿鐵北支事務局

改正機構要項

【奉天廿八日發同盟】 ...

다윈港防備强化

濠洲國防相發表

【시드니—二十七日發同盟】 ...

帝國態度는毅然

新東亞建設에邁進

英議會動向에不拘코

【東京電話同盟】 ...

山西南部敗敵

殲滅刻刻으로切迫

【北京十八日發同盟】 ...

國府官吏腐敗에

蔣介石戒告發布

【上海二十八日發同盟】 ...

貴院側無誠意로

改革案成否疑問

【東京電】 ...

蔣政權奧地逃避로

地方軍閥行動注目

雲南、四川兩省首腦會談結果

對中央政策意見一致

【上海二十八日發同盟】 ...

[illegible]

人事·集會

◆吉野伊之助氏(同盟通信社常務理事) ...

夕刊後市況 廿八日

◆各地 期米 後止◆ / ◆各地 商品 後引◆

[illegible]

事變第二年 中央公論 八月特大號の偉容

(特輯) 現下日本經濟の展望

日本主義と世界の立場…(大熊信行)
日米貿易の過去及び現在…(高島信太郎)
英米は對立するか…(本下半治)
日ソ關係の現段階
(秋山憲夫) 數學教育・社會…(平野次郞)
北海道開發の急務…(栗本勇之助)
明治洋畫の黎明期 (彭城貞德)
浦鹽日記 (手塚律藏)
東沙島
西澤島 (伊勢勝藏)
祖國と愛情 (岩上順一)
雨月物語清涼抄 (佐藤春夫)
高踏的文藝觀 (宇野浩二)
國民の經濟生活は何うなるか — 內海丁三 —
漢口・動く列國の使臣 原勝
五相會議論 馬場恒吾
戰爭と法律 勝本正晃
(俳句) 枕邊の蟬……室生犀星 (內田百閒)
勤勞奉仕運動の使命 (大西邦敏)
蒙疆拜見 (松下英麿)
芝居ざんげ (小林一三)
ゲ・ペ・ウ脫走者の手記 (延島英一)
武漢三鎭防衞と第三期抗戰 (周恩來)
若返へる陸軍 (濱田)
杉山平助論
街の人物評論 (高沖陽造) 東京だより
故國に歸りて (淸澤洌)
東洋印象記 (ラフレール)
夏宵讀物 掌握短篇特撰
犬はなぜ尻尾を振るか 小熊秀雄
少年 阿部艶子
目出度き哉人生 水谷準
夏別莊 中里恒子
統制御家族 細越鮭介
傳記コント 原奎一郞
悲しい敵 中川一政
大陸長期建設の課題 (現地特輯)
リシコフ大將脫出の眞相 丸山政男
(陣中創作) 鮑慶鄕 上田廣
(小說) 胡蝶と鯉 坪田讓治
(小說) 晩夏 窪川稻子
賞金三千圓原稿募集
特價壹圓
本日發賣 好評は切れの節は直接本社へ申込まれよ
東京丸ビル五階 中央公論社 發行

303533

三百餘種의野草 糧秣로는無盡藏

高原의閑日月! 배부른망아지의까브는양

山班 第三站 蘭谷 ② 文·寫 柳光台

난곡목장은 어상어년 마정국(馬政局)에서 권업모범장의소관으로 『권업모범장난곡목마지장』이라는이름을부처 실용적인 치운마와 내구력잇는 승용마(乘用馬)를 산출하려고 창설한것이다 기르기시작한것은 몽고말(蒙古馬)을 바탕으로하고 『아라브』 『사라브렌』 『앙그로아라브』 등 우수한 서양종(種)의씨를밧어 이상적조선말을 기를것인데 총독부에서는 소화사년 이목장을 이왕직에넘겻다 이왕직에서는 이곳보다수년압서 수원(水原)에다가 목장을두고 말을길러 오든바 이것을 인계밧는동시에 수원것을 여기에 합하야 대규모로 시설을 하기 시작하엿다 한번씨뿌리면 그냥내버려 두어도십오년동안은 말에게 멕일수잇다는 목초(牧草)를 배양하며 말오양간을수하고 겨울에맥일목초넣는 창고를 세웟다 ◇

봇(莫)의 바커는 꽃을뀌다가 그지어미 양떼에 어울거리며 이러는목장의 망아지를 어 배불리먹고 서로를 부비며 노다거를때다 한바탕 긔여 우안돌여가고 잇는 그들의 고주낙한 가보아 기자는 부질업는 생각에네 녀버린 크로 버-는 입사귀를차 저다니다자연의맹 어러라 사람이서 수삼도한입스 니 망망한 풀바다 갈꼿을타헤 매이는 외롱키흔고 적합이 비 황꿈업다 포근한 풀기를 버

게삼고 대지에 이름을 메기나 하엿엇는 적막감이 룽거웁거때 우럿다 ◇ 벡랑(伯樂)이와 이곳을 차저왓스니 맹을맞을 수송내까지 한 번내 보고 십다평강군(平康郡) 파랑게 뭉겻는 백봉산(白峰山)이 서쪽에진좌(鎭座)하고그동부쪽에 잇는금파산(金波山)이 고원을 이루고잇스며 사면이모두산악이노 픈산으로 울타리가되여잇서 거센바람을막고 외적의침입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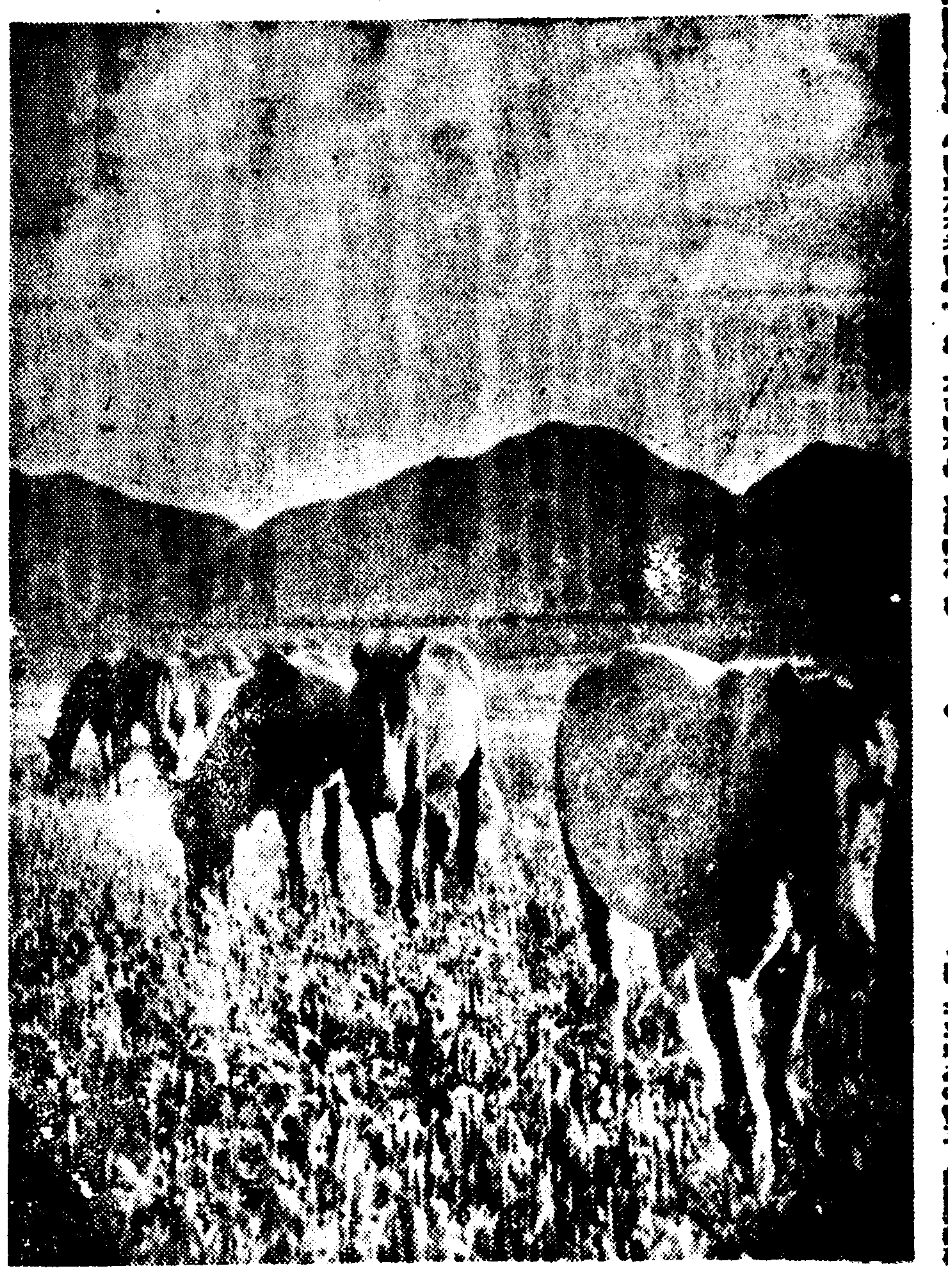
적게할이지형의 어(肥)한들어덧 고 상생여종 각생이주가 소나 말의어물물흔 축축하엿것다 어 기적기록하엿잇는 조고마한 나 무수풀 지짓쓸때 짓드리안하고 벌판을해풀는 말는지내 풀밭도 어느틈에 차저왓는지 얼룩말 한필이 머리미마나다나 갈기를 멈고이다 물마(驃馬)가 나를차 저와 아마도 벙해자는모양이다 기다리고 잇섯다는듯이 엉덩이 이러나보다 풀잉울을 뒤따라온 실여든망아지가 눈에띄운다 꼬 리를놓는돈동 풀뜻는든동 발굽으로땅을구비는동 고개를수그려 고풀끄림히드러다보는 먼데서 오는님을 영접하려오는것이나 그 러지안흐면 사람이그리운모양으 로 갈망을하는 사람이나 어떠지 축 은한생각이난다 말소는 미련한것가 응동엣 세도치 벗는재조를가진밖 게는 못하는

잇는 동물이라는것을 알리는것 이며 기닥 전설 우화(寓話)등 사람생활에 말처럼만흔 이야기 거리를 티친것도 드물것갓다 예로 머런한 내조상이 지금녀 축해줄을 흐면서 뒷발질 하는것을 본는니 다른동물재조가 업는것이 울고 한번보려지는동에 네 조상이 애히란계속어엿다드라 도 어예서왓런그래조랑부리지마라 꺼벅꺼벅하는 커다란눈이 무엇

이고란 재조가업서 사람에게 이끌려 매질로키워나며 빼속에 사모치는 경련한 노동을하면서도 반역할줄모르든 온순한것생 자미업지만 말의 가장조흔시절은 현재와가티 틀에서 풀뜨드

르기까지한다 사람가트면 천성 이 구만리가튼 소년시대로 야 표로 닥처올 신세의변천도한

죽한머리를 다투어 왼쪽 으로 벤것 그럭도 이로찬 눈이 외이게 감청의 아 등(?)가등 의심몰 여리가한 고잇스며 들이 정동 리도 나라말 의 아 안치고 니문 으 라 이 나 나 일(?) 가 나 가 는 에



(사진은 귀여운 망아지떼들)

이지방은 이러타할만 사람이 가저 지못하엿고 풍경조차단조하다그 엣날우리조상들이 농사를지으 기로이리로이라로 옥시기 잡아 되여 팀역할곳이라고한다 날 쓰강으로 질종이엇도 기이하 게보이지만 세대의변천에 딸십 올라진이는 무탈한지경을 가 질사람이 만흔데는 새상(?)상에 놀리지안흘수업섯스며 아직차기 가드러오지못한 부담은 밤이되 면 집집마다 등잔불이깜박거려 무명옷을입고잇다 그러나 조천 을대표하는 오수한(?)숭마를 산 출하는곳으로는 이곳만이 홀로 이름을 날리고잇다는것이다

惡辣한電話業者撲滅

市價抑制方針決定

賣買·讓渡·擔保及貸電話等一切禁止

不遠遞信省令으로公布施行

【東京電話同盟】 전화가 설제한에따르는 전화의시가(市價)억제에대하야는 그전부터 체신성에서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잇섯는데 전화업자의 교활한전화금융의 방법을 근절시킴에는종래의 방법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곤난함으로 이번에 단호한처치를하야 전화의매매 양도 담보 세노는전화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엿다 따라서 머지안허 체신성령을 공포시행하기로되어 이십팔일 영정(永井)체상의 결재를마첫다 체신성의 조사에의하면 현재 전화의 금융은 악덕업원의 다액이 될뿐하며 어에대한 악영향을 배제하기위하야 전화시간의 며러지기를 기다리고잇섯는데 전화업자의 영리주의적 나뿐수단은 너무나 심하므로 금번에 드듸어 전화업자의 박멸수단을 취하게된것이다 그리고 이결과 새로운 전화의수급조정이 필요하게되여 체신성에서는 특수법인 회사를설립하야 강력한 정부의감독하에두고 여에필요한 법률과 예산안을 오는의회에 제출할계획하에 안을 꾸미고잇다한다

基督新聞認可

부내 서대문정 일정목 팔십구번지에 본사를둔 기독신보(基督新報)는 수일전 총독부로부터 신문지법에의한 신문으로써의발행인가가나와 팔월구일에 창간호를내고저 지금 모든준비에분망중이라한다

이번 새로히나오게된 기독신문은 전에 조선야소교서회안에잇든 장로파기관지 『기독신보』(基督申報)의 후신으로서 이번새로히 신문지법에의하야 발행하는것을 기회로 제호를 고치는 동시에 내용을 혁신하게된것으로 초대사장에는 김우현(金禹鉉)목사가 취임하엿다

投書밧고活動 合百黨을逮捕

『합백군이 수십명식 모혀떼를며 부녀자를 희롱하니 좇처치하야 주시요』—이런 투서에 의하야 이십칠일오후 세시반종로서원이 부내운니정(雲泥町)팔십칠번지 염백순(任伯淳)의 집을 습격하야 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 칠백사십일번지 팡산업이해준(李海駿)(二○)외 일곱명을 잡엇스나 삼십여명은 노처버려 동서에서는 계속활동중이다 이들은 매일가티 모혀 라디오를 가지고 오르고내리는 기미시세를 먹기로 합백노박(合百賭博)을하엿다한다

家庭不和로 少婦飮毒自殺

부내현저정(峴底町)사십륙번지의 오백우(吳白雨)의처 황순자(黃順子)(二一)는 이십팔일오후세시경에 다량의 『양잿물』을 마시고자살을 하엿는데 원인은가정불화라한다

專賣局新廳舍 新築工事中止

이십칠만원의 예산으로 시내광화문통 법학전문학교 자리에 신축중이던 전매국(專賣局)신청사는시국관계로 물자절약의 취지에의하야 공사를 계속할수업서 중지키로 되엿다 그리고 전매국원은 자원애용으로 헌양복을재조(再製)하야 제복(制服)을 만들기로 되엿다한다

을 하며 출근케하시고는 복은부터자를 허용하야야 되엿이라고한다

赤痢猖獗

一月以降의發生患者 比昨年同期 五百餘名增加

바다하나를 새에두고 여기저기서 호열자가 발생하는 소연한중에 조선에도 다른전염병이 여전히 창궐하고잇다 그중에도 특히적리(赤痢)환자가작년에비해 오백이십명이나 늘엇고 아직도 줄어드는기미가보히지아니한다 유월한달동안의수짜만 보드라도 전염병발생 일천칠백오십사명으로 작년유월에비해서 일백육십칠명이 늘어가지고잇다

다른전염병은 대체로 줄고잇는데하필 적리가 창궐하는때문인데 일월이래 유월그믐까지통계를보면 오천팔백오십명으로 다른전염병만은 팔백십오명이나줄엇것만 적리가 오십이명이나늘어서전체로 작년보다 만흔수가 라고한다 이리하야 총독부 위생과는각도 각경찰서와 협력하야 적리방역을 단속하야 발생박멸에 노력하라고하엿다

女工의自殺事件

鐘紡이아니고京紡

기보=사랑하는 남자중에 작별에 변사한것을 비관한남어지에 기숙사동료의 잡이돈그 이름네세며 공장안 소화용저수지(消火用貯水池)에 투신자살한 여직공은 본서(鍾紡)의 예는 종연방적회사(鍾紡)가아니라 에의하면 이비극이이러난 공장만치 부근일대에 센세이슌을이르키고잇거니와 그후상세한조사가로공업(永登浦)에잇는 경성방직(京紡)이것이 판명되엿는데 (본보조간보도는 착오이엿기저정함) 영등포는 공장가라고 알려 산업보국에 매진하고 잇든 놀라다 그동안 사고다운사고가 업시 돌하지안흔이단애화가 나라나게되여 회제꺼리가되여잇다

女基靑野外親睦會

경성여자기독청년회(女基靑)에

二部制教授手當

範圍擴大囑託教員에게도給與

초등교원의수가 부족함에따라서 생기어부교수제(二部教授制)실시로 므로 이부교수를담당한 훈도에게는 특별수당을 주기로되여이 제도가 실시된 지난사월부터특별수당을 지불해왓는데 이번에 다시촉탁교원(囑託敎員)으로서도 이부교수를 담당한이에게는 역시특별수당을 주기로되어 각도지사 학무국장으로부터 각도지사에통첩을발하엿다

그규정은 특별수당으로는 훈도 촉탁교원 마찬가지로 한주일에 설흔여섯시간이상을 마른교원에게는 매달십원 마흔시간이상을 마튼교원에게는 십오원정도로하야 각도의 예산범위에따라서 도지사가 적당하고 려하도록하고 또는확당을 엽시증액을하도록한것이다

지금전조선에서 이부교수를담시되고잇는학교는 사백팔십팔학급으로 담임교원는 약오백명가량인데 훈도들은 지난사월부터 이귀정의 혜택을바덧스나 촉탁교원만은 빠젓슴으로 이번에 그대우의균형을 유지하도록한것이라고한다

本社主催

智異山探險團

意氣軒昂! 昨夜登程

본사주최의 지리산(智異山)탐험대는 어제밤 열차로 본사주필 이호구(李鎬求)씨 함(咸)편집국장, 김(金)영업국장이하 다수사원과 가족친지등의환송속에 경성역을떠나 일로장도에 올랏다 이날밤 동사복에 『룩작크』 흑은도피를하 간단한 차림차리에탐험을 꾀꾸르면서 차에오른 는불룩한룡들이 어떠할까 서한패기와 기개를 보혀주엇다 (사진은 경성역에서)

眞綿商의詐欺犯 開城橫行中被捉

【開城】 사변이후 철재기근으로 급켜히 철물갑시 올라감을기회로 개성부내에는 진면(眞綿)사기당이 횡행하든중 개성서원에게 체포되엿다

本籍 金剛郡 和順 長湍郡 長湍面下里

이름세명은 진유기사기를 공모해가지고 지난이십일일부내사직정(社稷町)마제야 일대를 다니며 부인들에게 유기그릇을 부처가되게해주마고속이여 다수한 부녀를 속여 금품을 편취해서고가에 팔아먹은 혐의로 경찰에 잡혀 취조중에잇다

貧苦,病苦를悲觀 七十老人이自殺

仁川花平町의悲話

【仁川】 생활고와병고에 졸떼오던 인천부화평정(花平町)사번지 신호동의차살 현수를 인천부회에 (李鍾龍)(七○)은 지난이십칠일오 후세시경에 자기집뒷뜰에서 목을매여 자살하엿다 그는 지난 몃해전부터 자식들을 다 일코 가난과 병으로 시달리다가 이번 에 자살을 한것이라고한다

原因모를火災 安義邑에續出

【安義】 경남안의읍내에서는 지난이십삼일밤에 화재가 발생하야 가옥을 태운후 연하야 수차례나 원인모를 화재가 잇섯는데 그원인이 아직도미상하나 방화설이 유력하게되는바 무지한사람들의 불안은 더욱커지고 잇다 독개비불이라는등 별별소리가 도라다니는만치 주민들은 밤이되면 안심하고 잠을자지 못할형편이라고한다

총딱

현상대매출(懸賞大賣出)이 업서진다고.

◯

매번 속으면서도 그래도 또 행여나 해서 업는돈에 일등만바라보고 물건을 사다가는 바더놋고 뎅어시 백화점 종종대를 내려오곤하든 신사와 숙녀님네 섭섭시원하겟군.

◯

남편을 줄려죽인 안해가잇고 애비를 죽도록때려 업프아들이잇고.....대체 어려코야 누구를 밋고 살맛 살기 어려운 세상인제......

曆

◀七月二十九日(金)、陰七月三日 ◀壬戌 ◀日出午前五時卅四分 ◀日入午後七時四十五分 ◀晝間十四時十一分、◀月出午前七時五十四分、◀月入午後八時五十分、◀滿潮 仁川 午前○時十五分과 午後○時四十五分

今日의運動

◀野球=大朝中等球豫選第二日—仁商對大邱商業(午前九時)、咸南中對平壤商業(正午)以上京城球場

都市對抗野球參戰

來八月二日부터 東京에서열리는 都市對抗野球에 出場할全京城軍은 一時出場을 中止하기로 되엿섯스나 其後再參戰하기로 決定되여 지난二十六日 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渡東하엿다

스포-츠

日加예杯對陣

十七日發同盟 日加데杯戰對陣은 二十七日午前十時半에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第一日(二十八日) 午後一時十五分(日本時間二十九日午前三時十五分)

單式 中野—월손 山岸—우리—

◀第二日(二十九日) 午後二時

複式 中野、山岸 — 월손、와튼

◀第三日(三十日) 午後一時十五分

單式 山岸—월손 中野—우리

豚,皮乾草採取懇談

【光陽】 전남광양군광양면(光陽面)에서는 지난이십삼일 오전십일시반 양면회의실(光陽面會議室)에서군내면장회를 개최하고 돈피(豚皮)와 마량(馬糧)채취에대한 간담회를개최하엿다고한다

近代科學의寵兒

(拾八金側代用時計)

(團體注文半打以上一割引)

아주安價며實物과틀림업다

弊商會技術部專屬工場에서拾數年間硏究의結果、十八金代用厚金張腕提時計用케ー스를發賣하게되엿습니다。本品은白銅에金을密着시킨、近代科學의粹가되는것으로絕對獨占的입니다

(弊商會獨特厚金張은 十八金과조금도틀리잔케使用되는데、眞品이라는名稱을부처서의賣買는禁止되어잇슴니다)

宣傳期間中에限하야堅實正確(二十個年保證附)스이스製器械를組入해서特賣합니다型優美機械正確스이스製

諸官省·諸會社御用達

A 18金代用16型(貳拾ケ年保險證書付) 瑞西製最優秀機械10寶石入アンクル市價參拾圓也の品 特價七圓七拾錢(鎖、メタル、サック奉仕添付)

B 純クローム側16型瑞西製品(貳拾ケ年保證書付) 10寶石入アンクル優秀機械 市價貳拾圓也の品 特價 五圓六拾錢也(鎖、メタル、サック奉仕添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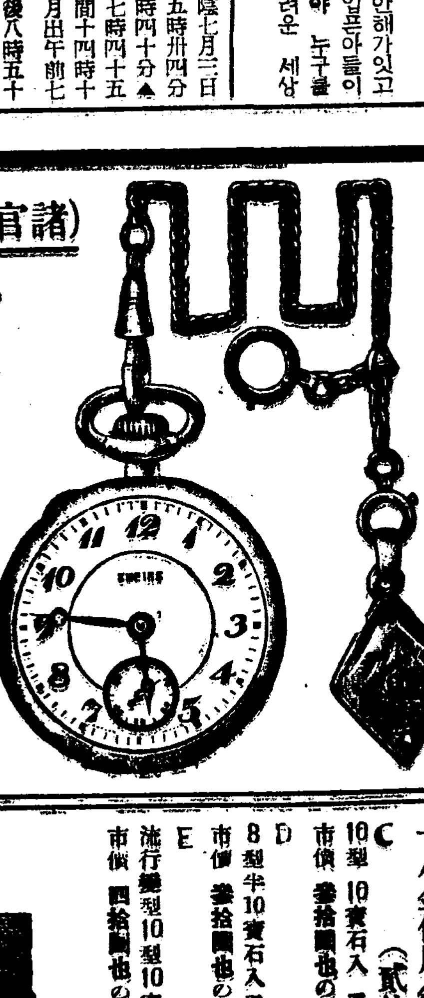
C 十八金代用金側腕時計(貳拾ケ年保險證書付) 10型10寶石入アンクル優良瑞西製品 市價參拾圓也の品 特價 七圓八拾錢也(腕革サック奉仕添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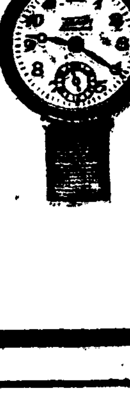
D 8型半10寶石入アンクル優良瑞西製品(婦人用) 市價參拾圓也の品 特價 八圓參拾錢也(腕革、サック奉仕添付)

E 流行角型10型10寶石入アンクル 市價四拾圓也の品 特價九圓也

F 純クローム側(貳拾ケ年保險證書付) 10型10寶石入アンクル優良瑞西製品 市價拾八圓也の品 特價 六圓九拾錢也(腕革サック奉仕添付)

G 8型半15寶石入アンクル優良瑞西製品(婦人用) 市價貳拾五圓也の品 特價七圓貳拾錢也(腕革サック奉仕添付)





右の特價で奉仕品參千個に限り朝鮮日報讀者春季奉仕として宣傳投賣す。前金送料免除の上優先發送代金引換にても御申込次第迅速に發送す。

東京市淺草區花川戶(東武鐵道雷門北口際)

スイツル貿易商會

振替東京一三三五番 電話淺草(代表)七七三五番

淋疾에!

小便보기가迅速히好轉하는것—疼痛、排膿等의自覺症狀이速히消失하는것—淋毒性諸病症의治癒가迅速한것等은本劑의最大特徵으로서各方面에賞用됩니다

主効 急性·慢性淋疾及睪丸炎 攝護腺炎·子宮內膜炎 喇叭管炎·卵巢炎等……

ネオカルコノーゲン

네오카루코노-겐

二○錠…一○○錢 …五○錢

文獻進呈 大阪市東區道修町 田邊五兵衛商店 宛

大阪·東京 田邊商店

男女淋疾 妙藥五淋錠

人參麝香入麻藥石類濟藥近代配合 二圓 三圓七十錢 發賣元 京城府大和町三 朝鮮藥學研究所

少年 八月號發賣中 定價十錢

第五 大滿測量學院生徒募集

◀出願期七月卅一日 ◀考査日八月四日 ◀開學日八月五日 ◀科目平面測量、高低測量、地形測量、其他設計、數學珠算、滿洲語敎授 ◀規則請求時郵券三錢切手 ◀奉天市平安通十二番地(電話⑤一五七二○振替奉天一一九六)

奉天測量學院生徒募集

◀學科 測本科(八個月)速成科(三個月)研究科(隨意) ◀募集期 八月末日 ◀開學 八月十日 ◀規則書郵券三錢切手 ◀奉天市十間房奉天郵政管理局前(電話⑤四六四一 振替奉天三四七番)

最新強壯劑 フェロトン

こどもの ねびえ かぜに オイン

本報 廣告部 電話本局四○三○番 販賣部 本局六三八一番

中部版

仁川精米所火因 漏電으로推測

【仁川】 기부지(?) [illegible] 精米所 [illegible] 漏電으로 [illegible]

建築制限令實施로 住宅難에 坐礁된 仁川

日傭勞働者는 生途조차 漠然해

注目되는 當局의 救護策

【仁川】 도시계획령과 구획정리 만 그밖에 집이업서 모이는 [illegible] 인천부내건 인구는 날마다 찾지못하는 이때 축물이 점점소되하는 경향에이 건축제한령의 영향은 실로크다 르렀스므로 일반의 주택난을나 건축업자는 일대비명을 부르짓 날이 곤경에이르렀다할은 이미 고잇스나 국책에순응하야 엇절 수차보도한바와가거니와 장기전 도리가 업는형상이나마 그들권 에이르러서는 건축제한령이실시 축업자에게 사용되든 인부가인 되자 [illegible] 천부에 약이배에달하는바 일거 에있는 인천부내에 인구가점차 리가 업서 그들도 휴업상태에 증가됨은 사실이주명하는바이지 [illegible] [illegible] 이들의 구호대책은 큼 도인천으로서는 비상한주목을이 끄는바이라한다

勤勞作業을 視察코 銃後의 忍苦를 激勵

京畿知事等職員出動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illegible] 전조선적으로실시한 [illegible] 노당국작업이 예상밖게조울지라 [illegible] 정시찰격려하기로되엿다 이십팔일은 신곡(神谷)내무부장이 인천으로 이십구일은 감자(甘蔗)지사가 개성으로 출장하야 각 학교의 작업상황을 순시하기로 되엿다

高麗磁器詐欺犯 開城署서逮捕

【開城】 개성부외 청교면양릉리(靑郊面陽陵里)사백십삼번지에사 [illegible]

戰線勞苦를想起 日曜에勞働奉仕

金浦郡廳員總出動

【金浦】 김포군에서는 국민정신 총동원하의 중대시국에 비추여 전선장병의 로고를 생각하는동 시에 [illegible]

首位는渡航問議

軍事關係事項도相當히만타

"警察案內"一週間成績

[illegible]

仁川更生館 來月初에開門

不良少年의安息處

【仁川】 인천사회사업협회(仁川社會事業協會)에서 주체되어 [illegible]

死別한母親이그리워 投江自殺한少女

臨津江에버려진悲話一節

[illegible]

改嫁한어미 亡夫所生遺棄

[illegible]

原料不足으로 鐵製品은減少

【仁川】 [illegible]

麻谷寺住持 安香德氏被選

【公州】 [illegible]

"防疫第一線"의緊張

海事關係、接客業者等에게

仁川府一齊히豫防注射

【仁川】 인천항의대안인 상해(上海) 청도(靑島) 지푸(芝罘)방면의 호열자(虎列剌)는 나날이창궐한데 감하야 인천서(仁川署)위생계에서는 [illegible]

結項한少婦

부끄러운姙娠에

【長湍】 [illegible]

長湍各品評會

褒賞授與式盛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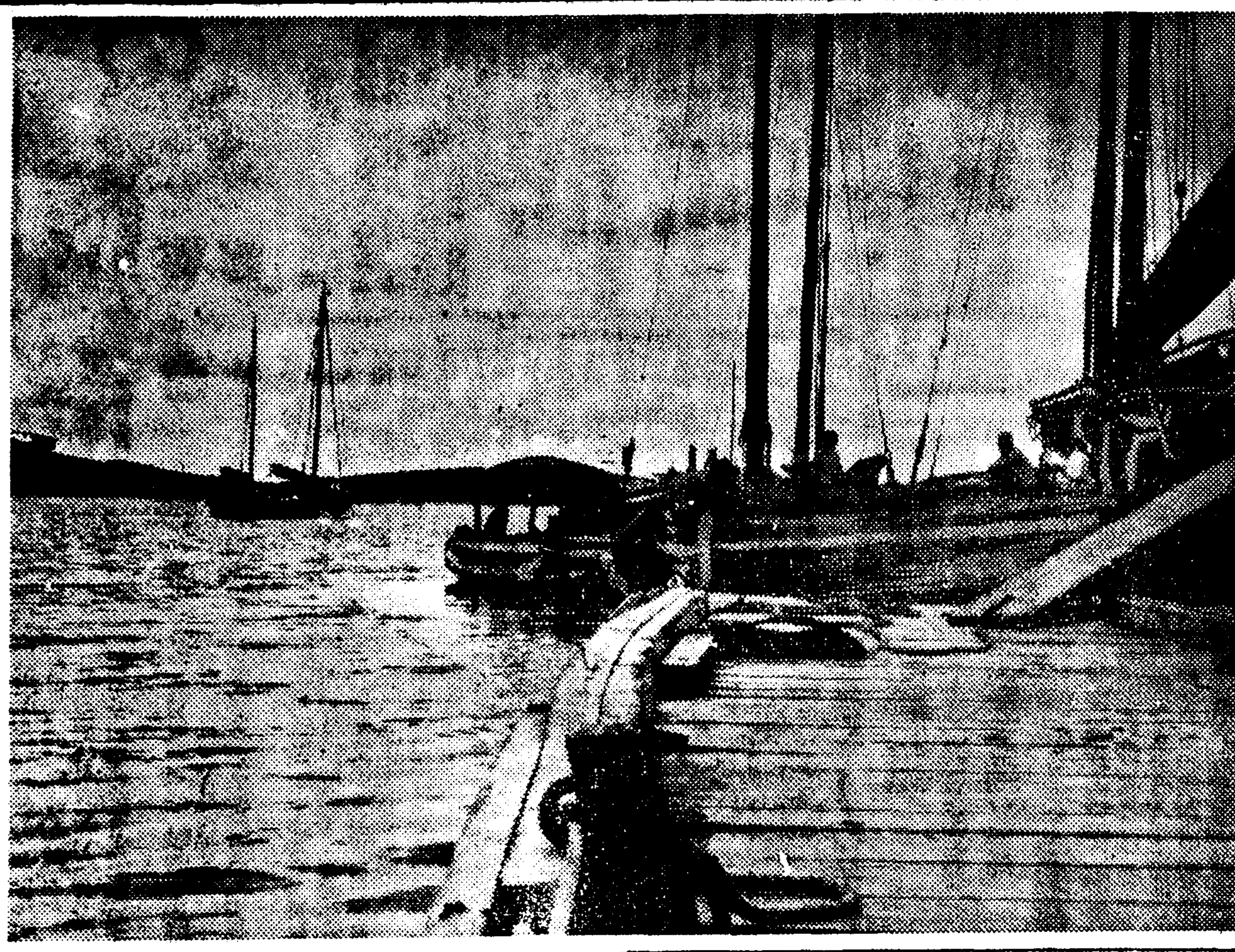
【長湍】 장단군진서면(津西面)의주최인 [illegible]

一、[illegible]品評會 一等 [illegible]

軍事援護相談所

開城府廳內에設置

【開城】 [illegible]



烈日아레 저녁江邊 (어제麻浦에서)

人事集會

[illegible]

昭和의常識

夏節은何故로 仁丹의御活用이 激增하는가

口臭를업새고、口中과全身을 爽快케하는故로

仁丹은 夏季特히 不快한입안의끈적거림、口熱、口臭를 即座에 解消해서 爽快한口薰은 금방全身을蘇生케하야 어떤 酷暑일지라도一抹의淸凉味와 共히元氣를 瀰溢케합니다

惡疫、傳染病을 豫防하는故로

일로부터날로 猖獗하는 惡疫과 傳染病의危險은 말할것도업시 此際 充分한豫防이肝要합니다、거기에는 仁丹으로 口腔衛生을하고 胃腸을튼튼히해두는것이 第一입니다

夏瘦、여름탐을 一切防止하는故로

食慾의減退를招來해서夏瘦 여름탐等과 健康上가장 危險한症狀을 招來키쉬운이지음、只今부터 仁丹을常用해서 消化機能을노피고、榮養을充分히하는것이야말로 此等의症狀을防止하는데 最適한方法

食傷、水傷치안는 解毒劑인故로

벌서食傷、水傷의時季、中毒慘事는 續續各地新聞紙上에 報導되고잇습니다 只今飮食後의 仁丹이야말로 어런慘事를 未然에防止하는 唯一한解毒劑입니다

猛暑에끔적도안는 抵抗力을만드는故로

猛暑로오는 疲勞의蓄積은 感冒와 寢冷의原因이되야 惡化할뿐입니다 仁丹으로각금 疲勞를 解消하고 同時에 榮養分으로 抵抗力을强化하는것이야말로누구나곳必要한手當

夏節의執務、勉學에 特히能率을내는故로

事務家에잇서서 不能率的인여름은 또 勉學家에잇서서 不記憶的인夏節입니다 이征服에는、먼저 淨血、血行促進에 即効하는 貴藥사후향을含有한 仁丹으로 明晰과 精氣를내는것이條件입니다

脚氣를充分豫防하는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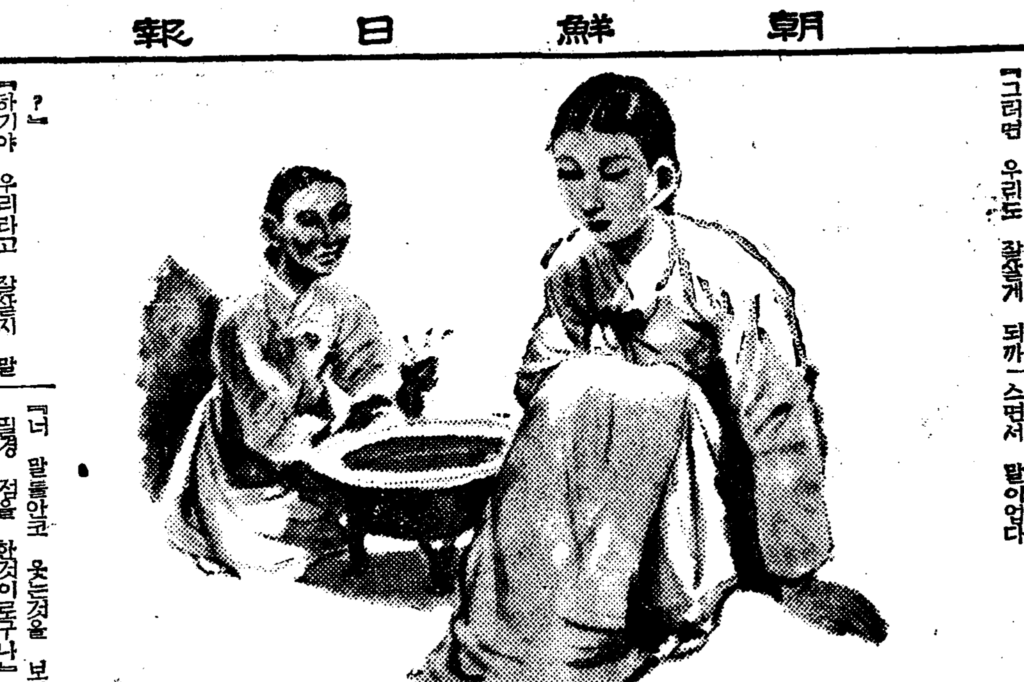
仁丹에는、비타민B가 濃縮되야、일로부터 脚氣症이擡頭키쉬운 時季를압두고 再確한念慮가잇는분은 勿論이고、그러치안트래도 仁丹의常用은 脚氣豫防으로서 누구나必要합니다

本舖・森下仁丹株式會社

長篇小說

薄命 (61)

韓龍雲 作 鄭玄雄 畫



세주가 十二

순영이는 정책이의 말을 듣고 나서는 모든 생각이 근본을 부러 흔들엇다 비판만 하고잇던 자기의 양심에 덩나하게 열리는듯 하엿다

『그런데 웬사람이 그러케 용한 사람이 잇니?』 하는 순영이는 못기는 하면서도 명백한 대답을 기다리지는 아니하얏다

『그러기에 말이야 어쩌면 그러케 아니 섯도 먼저알고 지나간일을 모두 아라내니 그게아마 인간 사람은 아닌게다 그러고 사람이며는 도통한 사람이거나 그러치?』

『아마 그러런지 무는수가 잇나버. 그런데 지나간일을 그러케 알면 이다음 일도 마추것지?』

『그야 그러치 지나간일을 아는사람이 이다음 일을 모루것니』

『그러면 우리도 잘살게 되까

『하기야 우리라고 잘살지 말라는 법이 잇거니』

『그럼 너는 어떠케하 것니 신마찌라도 가것니?』

『글세 그것은 죽기보다도 시르데 어떠케 햇스면 조흘는지 모르것다 점하는이 말이 여의치 못한일이 잇거던 김가성 가진 사람에게 무러보라고 하는데 아마 김가성 가진사람은 김선달 말인가버 하니까 김선달보고 말이나 해봐야 되것다 그래서 정히할수업스면 그대로래나두 하지어쩌니』

『나두 딴생각 말구 그대로가라는대로 갈가?』

『말이 그러치 죽기가 쉬우냐 그렁저렁 지내보자 얘』

그들은 말이 긋나지 못한채로 각각 집으로 도라갓다

순영이는 집에 드러가기가 저먹서먹 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조햇다。

술이 얼근하게 취하야서 그느스름한 눈으로 힐어지 보면서

『어디를 갓다가 이러케 늣게 오니?』

하는 송씨가 예어지 정다운듯하얏다

『재런이하고 장춘단을 갓다가 조금 느저서요』

『가서 무얼햇니?』

『하기는 무엇을 해요 거저도라다니며 놀다왓지오』

『거기 무엇 조흔 구경거리가 잇뎐?』

『아무것도 업서요 거저 경치 구경 어지요』

『언젠가 거기한번 지나다 보니까 길가에 판상쟁이 점쟁이들이 모두 무엇을 펴노코 안젓더니 지금도 그런것들이 잇는지 원』

호젓말 비슷하게 하는데 순영이는 못드른체 하고 대답을 아니하얏다

『그런사람들 더러 업던?』

『더러 잇나버요』

『똑똑이는 보지 못햇니?』

『웨 거기 잇서요 하나 잇는것은 보앗서요』

『보앗서? 그럼 점이나 한번처 보지 웨』

『그건 처서 무얼해요』

순영의 말소리는 조금 어색하얏다

『무얼 하다니 부자 되것는가도 보고 언제 시집을 가것는가도 보고 아들은 며치나 을는 그런것을 보아야지 무엇하러 보다니 무슨말이야』

순영이는 고개를 외여물고우스면서 말이업다

『너 말듣안코 웃는것을 보니 필경 점을 한것이로구나』

『……』

『점하는것이 나뿐일이 아니다 기일것이 무엇이냐 햇스면 다구 그러지 그러고 그러케 길가에 안젓다구 엽는여길것이 아니다 그런사람들중에정말 용한 점정이가 잇는법이다 엇거든 어이기나 좀 해라 심심한데 드러보자 나도 그런데 너만때는 그런말구라를 만히 하얏섯다』

송씨는 궁금하얏이 어떠가지 바방으로 정하고 아니한것을 묻고자한다

『처런이가 자꾸 하자구 하서 한번 해보앗서요』

순영이는 마지못하야 대답하얏다

『그래 무어라구 하던 대판점 재수가 어떠라구 하던 지나간일을 마추는것을 보면 용한지 얌전한지를 알지』

송씨는 여러가지로 뭇는다。

순영이가 드른대로 대강 말을 하매 송씨는 만족한듯이 너털우슴을 웃는다。

講演

【廿九日午後七時】

南北氷洋이야기 中央中學 金庠基

성운(星雲)이변하야 지구가되고 생물이성장하야 이지구우에서 인류가살게된지 이미유구수만재이건만 지구의양극인 남북극은 그비밀을 그대로숨기고고서 사람들을 가까이하지안코잇습니다 때로는 존귀한희생을바처서까지 그비밀을알고자 애써왓스나 아직도 그전체의모양을알기까지에는 한참인것갓습니다. 이신비경 양극 지방의기후 그곳에사는 생물이야기 또는먼저에도탐험한 탐험의역사와 열국의영토욕이 양극에까지뻐처서 과연어떠한쟁투를하야왓나 이러한 지문(地文)、인문(人文)역사일반에대하야 말슴하고자합니다

時事解說

『팔레스티나』의 人種鬪爭

東亞日報 高永煥

一九二五年以來 아세아의서쪽 『팔레스티나』에서 『아라비아』민족과 유태족(猶太族)이 투쟁을계속하고잇습니다 종교를달리하는 두민족이 한지방에 혼합치안흘수바게업게된지금의 형편으로는 민족간의투쟁은 그칠수업는숙명에잇는것입니다 이리하야그곳에는 거의날마다 유혈(流血)의참극이 끈일날이 업는데 우리는조금더 그내막을 관찰하야보면는 그들두민족의 쟁투의 이면에는 열강의조종하는 마술이숨어잇슴을 볼수잇습니다 그럼으로 『아라비아』인은 유태인을

管絃樂

(二十九日午後九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요-제프·로-젠슈톡크

(1) 歌劇「魔彈의射手」……웨-바-作曲

웨-바-는 독일이 나흔위대한 작곡가이다 一七八六年에 나서 一八二六年에 폐병으로 세상을떠낫다 그는환상적(幻想的)이며초자연적(超自然的)인 전설등에서 흥미를 늣기고잇습니다 그의 작품은 사랑을[illegible]하고잇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illegible] 어떠케 [illegible] 하얏습니다

(2) [illegible]

(3) 圓舞曲 「봄의소리」 요한·슈트라우스作曲

요한·슈트라우스 一八二五年에 나서 一九〇九年에 세상을떠낫다 오-스트리(墺)가나흔 「왈츠」의왕(王)이라일컷는 큰작곡가이다그의작품은 오백이나되리만큼 만흔데 모두가주옥(珠玉)가튼것이다 일반에잘알리워진 꼽고흔운 「다뉴브」 「빈의숲」의장미 「원기질(氣質)」 고흔五월 술과여자와 노래 어것은모두그의 걸작이며 [illegible]

(4) 스라부舞曲……드보르작-

드보르작-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흔 애국적(愛國的)작곡가이며 거장(巨匠)의 하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곡에는 보헤미아의 민족이 무척 힘잇시 흘느고잇습니다 그가 一八九二년으로부터 五년까지 미국에 초빙되여 뉴-욕음악학교장으로잇슬당시의 작품 「신세계(新世界)」는 너무도 유명한 곡목이다그는一八四一년에나고 一九〇四년에 세상을떠낫다

中央舞臺大公演

上演物

北歐傳說을取扱한"입센"翁의 "海賊"과李光來氏作"지는해"

本報愛讀者를優待

"海賊練習의光景"

壓主延鶴年氏가 永眠以後 여러가지로 受難의길을 거러오던 中央舞臺가 이번新劇을目標로 朝鮮演劇界에 새로운進出을꾀하기로되여 이번劃期的으로近代劇의 始祖 「헨릭·입센」翁의 『헬게란드의海賊』을上演하기로되엿습은 作紙에報道하엿다

元來中央舞臺는 그組織當初에는 中間劇이라는 旗幟를들고나서 多分히 外國劇을 飜案 又는 改作하야 上演하여왓섯든바 今後로는 좀더 眞摯한態度로 演劇의 코-쓰를 밟어나가기로되엿다 고한다

그리고 今般公演에잇서서 特히本報愛讀者를優待하야 一般五十錢을 三十錢으로 割引優待하기로되엿스며 現在同劇團의 部署는 다음과가다

部署

▲文藝部 金承久 安基錫
▲演出部 李光來 金海洙
▲裝置部 姜聖範
▲照明部 黃 蘇
▲效果部 鄭景俊
▲衣裳部 姜福植
▲小道具 金演景
▲프롬프타 申賢均 李載德
▲宣傳部 秦鹿仁

中央舞台讀者優待券

上演레퍼-토리
(1) 헨릭、입센作헬게란드의 海賊(三幕四場)
(2) 李光來作『지는해』(一幕)

一、日時 八月一、二、三日(三日間)
一、場所 太平通府民館大講堂

(本報讀者에限하야五十錢을三十錢으로割引)

◇◇CINE-MEMO◇◇

七月二十九日은…

포-엘의生日

여러분 아십니까? 七月二十九日은 "월리암·포-엘"의 誕日이다 "포-엘"은 "今年三十七歲의壯年 나기는 米國 "펜실바니아"州 "피츠바-크"라는 땅이다

뉴-욕에잇는 米國舞臺藝術專門學校를 卒業한후 十年동안이나 舞臺生活을하다가 一九二一年 처음 映畫界로나와 지금은 "M·G·M"會社의 專屬俳優다

그는 大概探偵的인 映畫에만히出演한다 그의作品으로有名한것은

(1) 巨星지-크프리-드
(2) 그림자업는사나희
(3) 男子의世界
(4) 結婚두데라-
(5) 一對二 等이다

東京올림픽返上과諸問題

東京에서 李想白

東京올림픽大會中止에 對한批評이나 論議는지금 그時機가아니라고하기보담그必要가업는것이自明하다。그것은 現下時局의重大性이라는 一言으로써다할수잇스니 이以上贅論할것이업다。問題는 東京올림픽이中止된後의影響이라고할지 方針이라고할지指標라는것이 큰問題이며 더욱體育報國、士氣振興、國民體力增進上으로보아 여러가지 誤解와濫斷과 孤誤를一掃할 必要가切實하다고생각한다。

東京올림픽大會를 中止한結果運動競技者가 熱心치안케되며 또는東京올림픽中止의 事情이 努力과 精進이 消極的으로 되여서는 問題는單純히 運動競技界의 羞恥뿐만아니라 體育國策이나 靑年士氣上 滋味업는 現狀일것이 明白하니 우리는어떤點이업게 自戒自省하여야하겟다

東京올림픽을 中止한것은 現下의時局에서 오림픽大會의큰設備를許可할수업는데 國民의全體的活動力과結力을 事變完結에 沒頭할가를 現下의 情態에 잇서서 올림픽가튼 國內의往訪과 關心과努力을 集中할巨事를 遂行하는것이不適當하며또한不能하니 他日의平和時를 期하기로하고 現在에서는 中止하는것이 適當하다는結論이다。厚生省當局이 이러結論에이르기까지는 朝野各方面에異常한努力이 그實現成功에 傾注하여잇든것을 深諒할바잇스니 이點은 厚生大臣의談話에 照하야도 明知할수잇는바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의 問題는 東京올림픽中止의 事情명이 아니라 그것이 決코 國民體育의 輕視나 또는 運動競技彈壓의 意가아니라 모든것 이나 또는 올림픽運動蔑視의所致가아니라는것을 極言코저하는바이다。

그뿐안이라 時局緊張의現下에 잇서 國民體力問題、따라서 體育運動과競技獎勵가 더욱더욱必須焦眉의 緊急事라는것을 銘心할必要가잇스니 突然히 今番의中止를 偏見하야 體育運動의消極化를意味하는 現象이라고보게되면 大日本體育協會는 勿論、厚生省當局者의 本心과切願을曲解하고 無視한다는議論을免치안을수업다。

今番이問題에當面하야 厚生省이나 體育協會가 가장深慮한點은 이러한一擧의 杞憂가 一部에생기지안을가한點에잇다。左記하는木戶厚生大臣의 談話形式으로發布한政府當局의宣言書를 보면 그苦心과眞意의 內容을明白히알것이다。

木戶厚相談

玆에 第十二回올림픽東京大會를 中止하지안흐면 아니될 境遇에이른것은 참으로 遺憾되이생각하야 마지안는다

◇

도라보건대 올림픽大會를 我國에서 開催하는데對하야는 바로그해가 紀元二千六百年의祝典의해이며 또한 我國勢를 海外에 宣揚하는때、好機會이므로 國民은 모두 그開催를 希望하고잇섯다 이리하야 我國에 開催決定을 보기까지에는 여러가지 迂餘曲折이잇서 困難한때에逢着한것도 한두번이 아니엿섯다 그동안 東京市와 밋大會關係者들의 終始一貫히 招致開催準備에 努力을하엿고 그中에는 이것을위하야 貴重한犧牲을 하분도 엿섯다 우리는이들여러분의 勞苦에對하야 平素에도 거듭敬意를表하고 엇든것이다 이와同時에 今日 日本에大會를開催하는데 對하야多大한好意를가진諸外國當局과밋 國際올림픽關係者에對하야 衷心으로感謝의뜻을 表하는바이다

◇

故로 나로서는 從來議會를비롯하야 여러가지機會에 올림픽開催를 希望하는것을 말하여왓다 이제 支那事變의 推移와 長期戰의 準備를 一層굿게하기위하야 物心兩面에亘하야 더욱國家의 總力을드려 事變의 目的達成에一路邁進하기를 要하는情勢에잇스므로 드디여 此際에올림픽大會開催를 中止하는것이妥當하다하기에이르럿다

◇

말할것도업시 近時國民體力의向上을 圖謀하는것이 喫緊의要務로되여잇는이때에 올림픽大會를中止하는것은 모든體育運動을萎縮케하는것가튼 感을國民에게주는일이잇다면 遺憾으로여기는바이며 此時局下에 國民은 더욱 身體의鍛鍊과 氣風을錬成하기위하야 非常時에相應한 國民體育에 努力하기를切望하는바이다

大會에對하야도 도라올和平의날을기다려再次招致하야 我國民의熱意를中外에 宣揚하고십다고念願하는同時에 그때에는 더욱더 海外友邦의一層의 友誼와協力을切望하는바이다

◇

非常時局에가장 必要한것은不撓不屈의 積極的精神과 積極的體力이다 그럼으로 體育도더욱積極的努力을하는것이 體力國策에 順應하는態度이엿서야 할것이다。獨逸은 國家艱難의高度인時에오림픽大會를 斷行하야 國民士氣의 振興과外國의 信用獲得에 成功하엿다。東西事情이相異로 우리는 지금時局의 緊張과 精力集中의 必要로 올림픽을 一時라도 [illegible]

◇

如意하면 明後年의紀元二千六百年에는 興亞의熱誠을披瀝한 祝典을表하야 一般國民의自覺振興을 바라고저하는 微意에不過하다。

先輩를爲하야 自明의 理致인것은 이契機에 厚生省、文部省과在野體育協會等 體育界의 [illegible] 體育獎勵와 競技精進이 一層더緊要한所以이다。

放送

二十九日(金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二〇分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時一〇時三〇分 家庭通報 料理製法 日用品市勢 『간전꾸어』
◇同一一時一五分 婦人講座 新生兒로幼兒까지(五) 『哺乳兒의生理』 醫學博士 李 [illegible]
◇正午 (東)時報 歌謠(레코-드)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第二次豫選實況(國語)
◇同四時 뉴-스 -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歌謠紹介
◇同六時三〇分 이야기 『[illegible]머니』 全 [illegible]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 『南北氷洋이야기』 中央中學 金庠基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就後娛談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요-제프로-젠슈톡
◇同八時三〇分 一、靑年歌 二、노들江邊 三、닐리리아 四、사발歌 五、靑春歌 [illegible]
◇同八時四五分 時調(京城)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玄石年 二 [illegible]
◇同八時四五分 新詩朗讀 馬 完 英
◇同九時 時事解說 東亞日報 高永煥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九) 宋 今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實用英語會話 (城)獨唱 佐藤千夜子
◇正午 (大)童話劇
◇午後六時 (東)文化講座 山湖의나라瑞西
◇同六時二五分 (大)歌謠
◇同七時四〇分 (自上海)
◇同七時三〇分 (大)連續探偵劇
◇同八時 (東)管絃樂
◇同八時三〇分 (東)時事解說
◇同九時一〇分

三十日 (土曜)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二〇分 同
◇同一〇時三〇分 家庭通報 [illegible]
◇同一一時一五分 婦人講座 『新生兒로幼兒까지(六)』 『育兒』 醫學博士 李 [illegible]
◇正午 (東)時報 (名)[illegible] 第三十二回 [illegible]
◇午後零時三十分 뉴-스 指揮 早川[illegible]
◇同一時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二次朝鮮豫選實況(國語) -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歌謠紹介
◇同六時三十分 라디오學校 『[illegible]』 李 [illegible]
◇同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 『[illegible]』 梨花高等女校 李 [illegible]
◇同七時三十分 뉴-스 就後娛談 天氣豫報
◇同八時 라디오時局讀本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화 二、倂唱 가、短歌 나、[illegible] 獄中歌 竹杖 [illegible]
◇同八[illegible] 野談 『新房虎담』 [illegible] 申 自 老 沈相健 成俊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〇) 李 完 [illegible]

第一放送

◇正午 (名)管絃樂
◇午後六時 (名)[illegible]
◇同六時二五分 (東)[illegible]
◇同七時三〇分 (大)[illegible]
◇同七時四〇 (東)[illegible]
◇同八時 (東)獨唱
◇同八時一五分 (靜)山[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東)長唄
◇同八時五〇分 (東)드라마

三十一日(日曜)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二〇分 同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時報 京畿立唱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四、[illegible] 五、[illegible] [illegible]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四重唱 一、엣꿈 二、나의집 비숍作曲 三、月桂꽃 슈-베르트作曲 四、思故友 풀로트作曲 五、첸러키엣집 포스터作曲 六、어머님의오리 同 七、피골제 소르라노 李 今 [illegible] 民謠
◇同一時三〇分 新作이야기 成 東 [illegible]
◇同二時 吹奏樂(레코-드)

◇同四時 뉴-스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illegible]』 指揮 金[illegible]
◇同六時五五分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唱劇 一、[illegible] 二、[illegible]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京城) 『[illegible]』 李 白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平壤) 韓 [illegible]
◇同九時 管樂 一、平調[illegible] 二、吹打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 西村眞太郞

第一放送

◇正午 (東) 箏曲
◇午後一時(大) 新人午後(浪律)
◇同一時 (城) 만돌린
◇同六時 (東) 童話
◇同六時二五分 아나운사國葷
◇同七時三〇分 (東) 漫才
◇同七時四〇分 (東) 物眞似
◇同八時五分 (東) 歌謠曲
◇同八時二五分 (東) 落語
◇同八時五〇分(東) 라디오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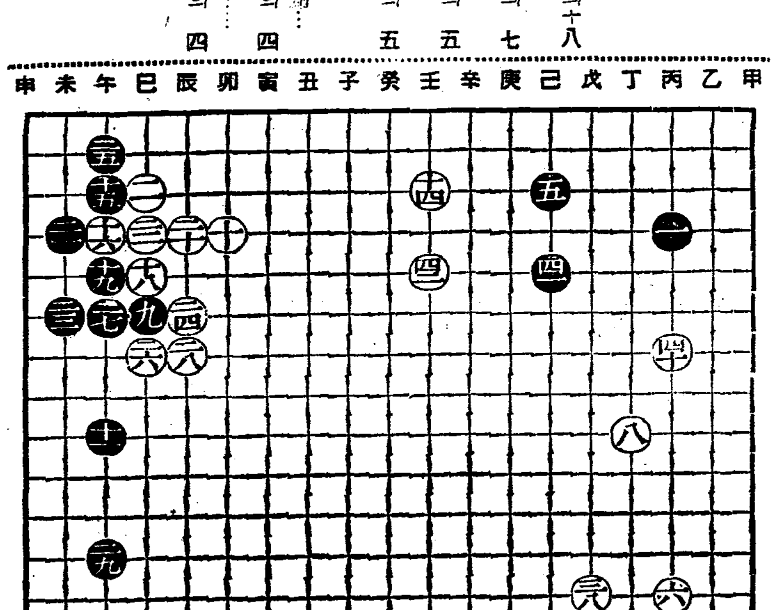
國手爭覇譜 =(5)=

白 丁奎春
黑 權秉郁
(四目半込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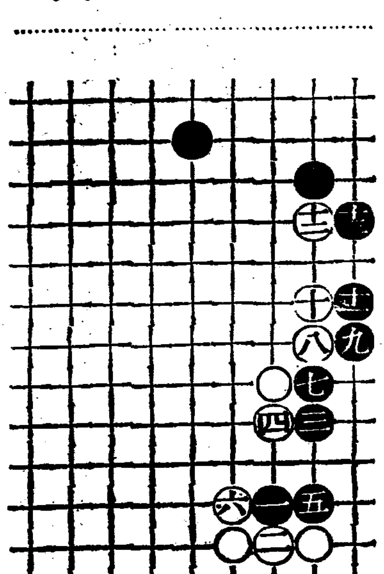
本社獨占

黑三九의過誤로 도리어白勢가振起햇다

三 玄 子



參考圖



● 乙의十八 ○ 丙의七 ● 己의五 ○ 丙의五 ● 巳의四 ○ 巳의四

論 白三八이 丙의七로 벌리지안코 戊의一三으로 濉出한것은 이方面으로 黑勢가擴大되는것을 阻止함과함께 右邊中央의白地를 安保하기爲한것이지마는 前回에서도 말한바와가티 堅固해 진것이아니오 白地가 乙의一七로 쪼手케한뒤에 丙의七로 벌리는것에 比하야 한갓地難이 縮少된것뿐이다 그리고 그陣形에잇서서는 白地中으로 侵入할方法이 制限되지마는 譜와가튼陣勢에는 黑이 丁의一二로侵入하야 이方面의白地가 거의蹂躪되고 그우에 白軍은 兩斷된危險도업지마는 金城鐵壁의 이黑地에 理由를 세울수도 업지아니하未生이면 그를 完生해준다는 일이다 或은 이方面의黑軍이 手番 써바리것을 了解할수업는에두어 七、八戶의細碁에다 先 그러데 黑三九가 乙의一八끄니는자리가잇서安心할수업다 은 連結되나 白軍은 斷處의白地가 金城鐵 되고 또黑軍 丙의五 黑一三 乙의五가되어 의七 黑一一 乙의七 白一二 八 黑九 乙의八 白一〇 丙 二 黑七 丙의一二 白六 戊의一 黑五 丙의一一 白八 丙의 丙의一 〇日 四丁의 一〇 의 丁의一二 白二三 黑三

저아니한것을 注意할바이다 이제 그를 圖 示하면 黑一丁 그러한理由로 加手할必要가업는것은 勿論이다 그리고 黑三九는 우에서 말한바와가티 丁의一二로 白地에 侵入하던지 그러치아니하면 丙의七에 두어 上隅의黑地를 擴大시키는 同時에 白陣의發展을 牽制하얏스면 勿論先手도 保障할수잇고 實利도적지아니하얏슬것이다。 그러나 이제 白四〇이 丙의七을 占하게되니 黑四一은 巳의五에두어 上隅의黑地를 安保치아니할수업고 따라서 白四二로하야금 王의五로進出케하니 白軍은 右邊中央을 占有한것뿐이아니라 上邊으로부터 中央에 進出한 中原大場까지 安保할수잇게되엇스니 黑三九의 先手拋棄으로 말미암은 損失은 적은것이아니다。

기침에잘듯고먹기좋은약

지밋신

TY-K-80

지밋신은 구미각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대표적제약으로 지미초의유효성분을 뽑아쓸률에한첫이니 담·기침에 잘듣을뿐만아니라 맛이좋음으로써 약을실허하는 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더욱유효합니다 또한 극약성분이 조곰도 석겨잇지않음으로 아모런부작용의 염려가없으니 아모리몸이약한 여린애의게도 절대안심하시고 먹일수잇음니다

그러므로 기침병중에서도 가장 고통이심하고 알는기한이긴 백일해의특효약으로써 칭찬을받고잇사오니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고통이 심한뺄작과 담·기침이 끈계이며 밤에 잠을잘자게 만들어줍니다

一圓 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 잇읍니다

요새에 심하게되는 고질의천식에 특효한 중환용 지밋신이오니 섬한발작과담을 속히 낫게하고 밤잠을 잘 주무시게만드는「에푸에도로 지멋신」이 생겻읍니다

에푸에도로 지밋신 エフエドロ·チミツシン

一五〇瓦…一圓八十錢

조선에많은 발은기침에 잘 듯는 중환용지밋신이니 병세를다스릴줄뿐만아니라 병근원에까지 작용하는약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지 폐병 늑막으로인한기침에특효합니다

구아야코 지밋신 グアヤコ·チミツシン

一五〇瓦…一圓八十錢

東京·大阪 田邊商店

七月二十八日より三十一日まで 一〇五七ン七〇一均一

大朝ニユース
四つの葉のクローバ
世界の陸軍
大每ニユース
人妻日記

6·45 1·40 3·00
6·55 1·15 3·10
8·20 1·10 4·35
8·40 1·30 4·55

若 劇

軍事映畫割引券持參の方は一割引致します

新派劇 七月二十八日早日 夜間上演 李瑞求 作 演出 『외로운사람들』 『孝子製造法』 二一四三番
八月四日早日五日間 名畵鑑賞大會 於府民館
特別料金…十錢均一 八月四日早日四日間
▲映名畵 アンルドアンクの エリッヒ·エンゲル監督作品 『鄕愁』
▲八月六日早日七日까지二日間 ヴィリ·フォルスト監督作品 新興キネマ特作 『半島の舞姬』

東洋劇場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一劑十一圓 平和堂 京城堅志洞

廿九日ヨリ八月一日マデ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

讀賣事變ニユース
吾が子
ユニヴァーサル超特作日本版 主演 ラタ·レビラルシザーロメロ
ギャングの罠
阪東妻三郞主演 血戰

每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七月二十八日早日三日間!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特選名畵大公開週間!) 東寶超特作全發聲日本版!
海洋喜劇 海は桃色 全十卷 監督…ルイス·マイルストン 主演…ビング·クロスビイ
助演 エゼル·マーマン チャーリー·ラッグルス アイダ·ルピノ
◇東寶超特作全發聲版!
男性的名譯 鐵腕都市 全八卷 監督…渡邊邦男 主演 岡譲二 霧立のぼる 大川平八郞 山縣直代
全勝キネマ特作オール·トーキ版 時代活劇日本ターザンの 密林の覇者 全七卷 監督…山口哲平 主演 樺山龍之助 日の本本吉
六尺三寸の巨人 一寸の小男

京城新星町 電本五六七七番
新富座

七月二十八日早日四日大公開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每日三回興行 二回目七時半 一回十二時三回四時
라디오特作全發聲日本版 捷さたる新婚 에리크라델 세시리아파-가- 共演 原研吉 監督
大船特作オール·トーキ 松竹 母ぞよく知る 三宅邦子、飯田蝶子、近衛敏明 佐野周二 監督 星野武六
松竹 京都特作オール·トーキ 火華 中川芳江 本郷秀雄主演

第一劇場